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 간 까닭 성경: 마태복음 2장
1-12절

Tag: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2:1-12)

-헤롯왕(B.C 43~B.C4년 38년 통치. 70세에 죽음.)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헤롯왕은 잔인하고 음흉한 왕으로 유명함.(에돔왕의 둘째 아들. 어머니는 나바테아의 공주. 이 가문은 마카비 하스몬왕조에게 정복 당한 후 유대교에 들어옴.)

-그는 25세때 갈릴리 지방 총독이 되었다가, B.C43년 하스몬왕가와 결혼(마리암- 동생 살로메의 모함으로 죽임 당함. 아들까지.)

-그는 유명한 건축가, 도시와 항구를 건설함. 성전건설.

-동방박사. 아마도 바벨론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유대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구약성경도 전수받아 연구했을 것이며, 왕의 별을 발견하고 틀림없이 메시야가 태어났다는 판단 아래 유대로 여행을 하였을 것이다.

-동방에서 서쪽으로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들은 왕의 길로 왔을 것이고, 갈릴리에 들어서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별이 예루살렘 위에서 빛나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다시 별을 보니 그 별은 동쪽에 있었다. 왜냐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기 때문이다. 멀리 북쪽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간의 거리가 8Km 정도 였으니, 당연히 남쪽에 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다짐하지만, 세밀하게는 내 판단을 의지하거나 의례히 그러했거니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의 판단과 경험과 눈대중과 어림짐작은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에 수 많은 왕들이 있었고, 당시에는 마카비 하스몬왕가의 왕도 아닌 에돔사람 헤롯왕이 들어섰는데 유대인의 왕이 가당키나 한

가?

-구약성경의 메시야는 결코 헤롯왕의 후손일 수 없는 상황이다.

-구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다윗왕가에서 메시야가 나실 것이라 예언됨.

-유대인의 왕은 명백히 메시야를 말한다. 그가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열심이 특심이다.

-아무런 사정을 모르는 동방박사들. 헤롯은 이들을 숙일 수 밖에 없었고, 그는 메시야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별의 정체를 알았다 치자. 그렇더라도 이 별은 2년 전부터 나타났는데, 당시에는 베들레헴에 아무런 일이 없었고, 더구나 그곳은 메시야가 나타날 아무런 징조도 없었다. 혹시 어떤 경건한 학자가 알았더라도 헤롯왕의 폭정 때문에 오히려 숨기려 했을 것이다.)

-헤롯왕이 소동하였다. 이게 무슨 날벼락같은 말인가?

-그는 즉시 박사들을 소집하였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메시야에 대해서 연구하여 답을 내라 하였다.

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시적 표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5:2)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의 해석이 포함 됨.

-연구해서 베들레헴을 얻어낸 헤롯.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때를 자세히 묻는 헤롯. 왜일까? 벌써부터 그를 죽일 생각부터 하

고 있다.

-이미 나이 70. 살 만큼 살았고, 자기 아들들이 뒤를 잇더라도 한참 뒤의 일일텐데.

-권력에 대한 탐심이 끝이 없다.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을 속이고 자신도 경배해야 하니 꼭 찾아서 알려 달라고 신신당부를 함.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당시 박사들은 연구하던 자들.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나셨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컸을 까?

-이 동박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성탄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소식은 온 세상에 복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편에서는 메시아 탄생을 결코 숨기지 않으셨다.

-별써2년 전부터 큰 별을 베들레헴 상공에 띄우셨다.

-마리아에게는 1년 전쯤, 요셉에게는 6개월 전쯤 현몽하여 요셉은 정혼한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베들레헴 인근 목동들에게도 탄생하시는 날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 되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 시므온과, 예언자 안나에게도 계시되었다.

-다만 주류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계시는 명백하게 계시되고 있었다.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계시되고 있었다.

-주류 언론은 오히려 메시아의 탄생을 억압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지 못한 것이다.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려 장차 애굽 생활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다.

-헤롯은 철저하게 박사들을 숙였지만, 하나님은 박사들의 꿈에 현몽하여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당하라.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 적어도 열흘은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8일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제사장 시므온과 예언자 안나를 만났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천사의 계시를 받아 애굽으로 떠났을 것이다. (당시 애굽 알렉산드리아에는 매우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 이후에 헤롯은 속은 것을 알고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래 사내아이를 모두 죽였다.

-아마도 몇십명은 되었을 것이다. 잔인한 헤롯의 모습이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은 병에 걸리게 되는데, 내장이 썩고 벌레가 생기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는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한다.

-그러나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하여 주저하기에 다시금 나사렛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나사렛은 당시에 매우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동네로 알려졌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라 함은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실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게 되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헤롯(BC4년까지 통치-충이 들어 죽음)

헤롯 아켈라오-유대지역 폭정 통치하다-유배당함(갈리아)

헤롯 안티바-갈릴리 지역 통치 -나바테아 공주와 결혼했으나 이혼;
이후에 나바테아에게 복수전을 당함.

-세레요한 당시 이복동생의 딸 헤로디아와 결혼, 그 딸 살로메의 춤
에 세레요한의 목을 줌.

드라고닛, 비투니아를 통치했던 빌립은 자연사함. 아들 없음-총독령
이 됨.

-안티바의 조카 아그리파1; 그는 갈리굴라와 친하고 함께 자람.

아그리파는 안티바의 실책을 고자질하고 본봉왕이 됨.

그러나 그도 젊어서 죽는다. (아버지처럼 충이 먹어 죽음당함. 그의
아들 아그리파2세가 행26장에 나옴)

<찬양예배>

제목 : 스스로 팔린 자(이세벨이야기) 성경: 열왕기상 21장
25절

Tag:

이세벨의 등장

29 유다의 아사 왕 제삼십팔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왕상16:29-33)

엘리아의 등장 (17장, 사르밧 과부, 신약에서는 사렘다로 알려짐)

4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왕상18:4)

19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 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왕상18:19)

1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왕상19:1)

2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왕상19:2)

5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상21:5)

7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왕상21:7)

11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왕상21:11)

14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왕상21:14)

15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왕상21:15)

19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23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왕상21:23)

25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왕상21:25)

-그후 아합은 유다왕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고 (여호람-아달라) 그와 함께 전쟁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함. 병거에서 화살에 맞아 피를 많이

흘려 죽고 사마리아에서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그 물을 핥음.

27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왕상 21:27)

-아합은 겸비하여 그 집안의 재앙을 피하고 그 아들이 당함.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2년을 다스림.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걸음. 바알을 섬김.

-그는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됨. 아들이 없어 동생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됨. 12년 통치.(이자도 이세벨의 아들)

7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왕하9:7)

-엘리사가 생도 중 한명에게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르라 함.

-당시 여호람(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우다 부상당함.

-예언을 받은 예후는 요람에게 가서 그를 화살로 쏘아 죽임.

10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왕하9:10)

22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왕하9:22)

30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왕하9:30)

36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왕하9:36)

37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왕하9:37)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
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꺾어 행음하게 하고 우
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2:20)